

벨기에 농업현황과 시사점

이 혜 진 *

1. 벨기에 개황

유럽 북서부에 위치한 작은 나라 벨기에는 네덜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벨기에는 북쪽의 ‘플랜더스(Flanders)’ 지역, 남쪽의 ‘왈로니아(Wallonia)’ 지역, 수도 브뤼셀, 즉 지리에 따라 세 개의 지역권으로 구분되는 연방제를 취하고 있으며, 그 하위에는 다시 10개의 주(province)로 구성된다. 이러한 지리적 구분 외에도 벨기에는 다시금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공동체로 구분되는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통 플랜더스 지역은 네덜란드어를, 왈로니아 지역은 불어를 사용하지만 구분된 지역권에 따라 반드시 동일한 언어공동체 속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왈로니아 지역의 동쪽 일부는 독일어 공동체에 속하며 브뤼셀에서는 네덜란드어와 불어가 공식문서에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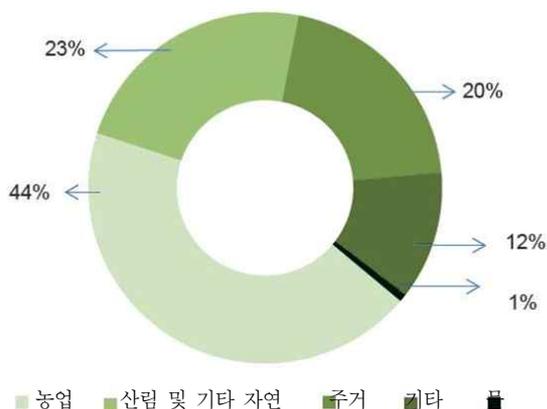
18세기 말까지 벨기에는 오스트리아, 스페인,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가 이후 다시금 네덜란드에 병합되는 등 열강들에 둘러싸여 세력다툼에 희생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국가이지만 여러 개의 언어권으로 구성되고 지역정부의 영향력이 큰 까닭은 1830년 벨기제가 네덜란드에서 독립한 때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독립 당시만 하더라도 벨기에 전체가 불어를 단일 공식 언어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주요 공식 문서들이 불어로만 작성되면서 본래 네덜란드어를 쓰던 이들이 점점 정치참여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저항하면서 1차 세계대전 이후 벨기에 내 언어권이 분리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이유로 인해 지역 간 대립이 매우 큰 편이다. 2007~2011년 특정 주의 선거구 분할 문제에 대한 지역 정당 간 의견 불합치

* KU Leuven 대학교 박사과정(hyejin.lee@student.kuleuven.be).

로 541일 동안 중앙정부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이는 2010년 이라크의 무정부 기록(249일)을 넘어 최장기간 신기록을 경신한 것이다(The telegraph 2011). 또한 다소 과장되긴 하지만 한 논문(Deam 1998)에서 인용한 벨기에 역사학자의 표현은 벨기에의 정치적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벨기에에는 정당과 지역들만이 존재할 뿐, 국가는 없다. 이 군주 국가는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 친 텐트처럼 풍랑으로부터의 피신처 역할은 하지만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벨기에 국토면적은 3만 528km²(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약 삼분의 일에 해당한다. 전체 국토면적 중 플랜더스가 44.3% 왈로니아가 55.2%를 차지하여 왈로니아의 면적이 10.9% 더 크지만 인구 밀집도는 플랜더스가 약 두 배 더 높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토 이용면적은 농업이 44%이며 이어 산림면적이 23%, 주거면적이 20%를 차지한다. 산림면적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농경지의 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주거면적으로 인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1> 2015년 벨기에 국토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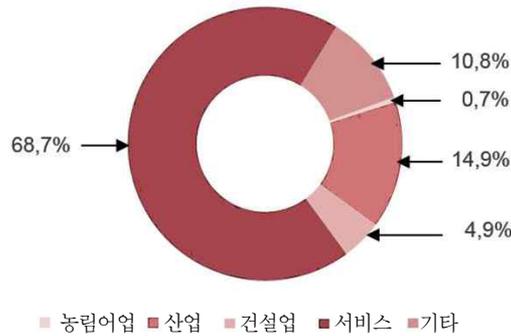


자료: Statistics Belgium(2017a:22).

2016년 벨기에의 GDP은 4,216억 유로(한화 약 552조)로, 유럽 총 인구의 2.2%에 해당하는 적은 인구이지만 유럽연합 내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은 2.8%로 비교적 높아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GDP의 68.7%가 3차 산업 서비스부문에서 발생하는데 서비스 부문 중에서도 무역·교통·접객업이 2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행정·교육

19.2%, 법인서비스 18.2% 순이다. 산업부문의 GDP 14.9%를 더하면 총 GDP의 83.6%가 산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7%로 우리나라의 농업 GDP 비중(2016년 기준 약 2%) 보다 낮다. 2007년 대비 2016년 부문별 GDP는 증감률이 농림어업 부문에서 유일하게 감소(-9%)한 것으로 보아(Statistics Belgium 2017a) 벨기에 농업도 유리한 상황에 놓여있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2> 2016년 벨기에 GDP 부문별 비중



자료: Statistics Belgium(2017a:35).

2. 농업 현황

2.1. 개황

벨기에 농업의 주요 특징은 도시 근교에서 이루어지는 농업활동이 많다는 점이다(Foreign affairs, foreign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2016). 도시 근교 농업(peri-urban agriculture)은 도시 내 혹은 주변에서 행해지는 농업으로써, 도시 거주 인구의 필요에 사용될 수 있는 토지, 물, 에너지, 노동력 등의 자원을 이용하는 농업을 일컫는다(FAO 2015). 또한 인구 밀집도가 높아 거주 및 산업 지역, 도로 기반 등의 기타 토지 이용계획과 농지 간 경쟁적인 상태에 놓여있다. 높은 농지 가격은 농업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인(young farmers)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소득과 더불어 쉽지 않은 농업의 노동 여건은 신규 농업인들의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벨기에는 농가의 시설투자 지원과 청년농업인의 진입을 장려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농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 조직과 수직적 통합 조직의 설립을 통해 식품 생산 체인에서 농업인들의 협상력을 강화코자 한다. 벨기에 대부분의 과일·채소 재배 농가는 생산자 조직, 낙농가는 협동조합의 형태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과일·채소 재배 농가의 생산자 조직 참여율은 95%로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European commission n.d.).

어떤 여건 하에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벨기에 농업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역사·정치적 배경을 고려하여 자료 확보가 가능한 경우 지역별 농업 특징을 소개한다.

2.2. 농업구조

현재 벨기에 농업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농가 수의 감소와 농업면적의 규모화라 할 수 있다. 지난 36년 간(1980~2016) 농가 수는 68% 감소하였다. 플랜더스 지방과 왈로니아 지역에서 매년 평균 3.2%의 속도로 농가가 사라진 것이다. 그에 비해 농업면적은 농가 수의 감소폭만큼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는 농가(호당) 평균 면적이 지속적으로 규모화 되었음을 의미한다. 1980년 농가당 평균 재배면적은 12.45ha에서 36.13ha로 약 3배 증가했다. 농가의 규모화는 작물재배 면적뿐만 아니라 농가당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농업 생산 전반에서 규모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농가당 재배면적은 왈로니아가 플랜더스 보다 두 배 이상 크다. 이는 플랜더스에 농가의 밀집도가 더 높고 플랜더스 지역의 주요 농가유형(원예농가, 양돈, 양계) 특성 때문이다(Wallonie 2017).

벨기에 농지의 66%가 임차면적이며, 33%만이 농지소유주에 의해 경작되고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 회원 28개국 중 4번째로 높은 임차비중이다(Swinen et al. 2016). 임차농지 비중 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여러 제도적 요인들이 있겠지만, 높은 인구 밀집도와 도시화로 인한 농지가격 상승이 임차비중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농지 매매 가격이 네덜란드에 이어 11개 유럽연합 국가¹⁾중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Swinen n.d.), ha당 평균 20,000~25,000유로에 달한다. 지난 30년 간 평균 4배가량 농지가격이 상승했다(Beeck 2016). 벨기에의 느슨한 규제가 농지를 주거용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로 인한 토지 투기로 인해 농지 가격이 상승했다. 농가가 직면한 여타 불리한 구조적, 경제적

1)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영국

상황으로 인해 농가의 수가 감소하고 동시에 대규모 소수의 농가로 경작이 집중되어 재배규모가 커질 수 있었던 것이다(Beeck 2016; Cavailhes and Thomas 2011).

벨기에 전체 고용의 1.3%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가 수 감소 경향에 따라 농업 노동력 또한 크게 축소되어 1980~2016년 동안 농업 노동력의 60%가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 당 노동력은 1980년 1.63명에서 2013년 1.97명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가족 구성원이 아닌 고용 노동력의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농업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고용 노동력의 비중은 1980년 3.9%에서 2013년 20%로 크게 늘어났다. 이 뿐만 아니라 트랙터와

<표 1> 벨기에 농가 수·농업면적·농업노동력 추이
단위: 호, ha, ha/호, 명, 명/호

	1980	1990	2000	2010	2014	2015	2016
벨기에 전체							
농가 수	113,883	87,180	61,926	42,854	37,194	36,921	36,910
농업면적	1,418,121	1,357,366	1,394,083	1,359,019	1,333,398	1,333,884	
호당 재배면적	12.45	15.57	22.51	31.71	35.85	36.13	
농업 노동력	185,134	142,272	107,399	80,944			
가족 구성원이 아닌 노동력	7,139	7,791	9,962	14,437			
농가 당 노동력	1.63	1.63	1.73	1.89			
플랜더스							
농가 수	75,898	57,934	41,047	28,331	24,252	23,998	23,908
농업면적	634,397	603,896	636,876	616,866	616,301	610,839	
호당 재배면적	8.36	10.42	15.52	21.77	25.41	25.45	
노동력	124,658	96,015	74,695	56,575			
가족 구성원이 아닌 노동력	5,140	6,223	8,121	11,296			
농가 당 노동력	1.64	1.66	1.82	2.00			
왈로니아							
농가 수	37,843	29,178	20,843	14,502	12,894	12,872	12,950
농업면적	783,165	752,743	756,725	740,885	714,749	717,527	
호당 재배면적	20.70	25.80	36.31	51.09	55.43	55.74	
노동력	60,141	46,076	32,614	24,315			
가족 구성원이 아닌 노동력	1,883	1,494	1,806	3,106			
농가 당 노동력	1.59	1.58	1.56	1.68			

자료: Statistics Belgium(2017b).

기타 농업기계의 보급률이 증가하는 등 농업의 기계화 또한 농가당 노동력 감소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기준 농가 경영주의 연령은 50대가 3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40대 28.0%, 60대 이상 26.5%, 30대 9.1%, 30대 미만 1.5% 순이다.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과 비교하면 64세 이상의 고령농과 35세 이하의 젊은 농가 경영주의 비중이 낮아 중장년층의 농가 경영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European commission n.d.). 플랜더스와 왈로니아 모두 50대 연령의 농가 경영주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왈로니아의 60대 이상 농가 경영주의 비중이 플랜더스 보다 8.1% 높게 나타나 왈로니아의 고령농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50대 이상 연령의 농가 경영주 가운데 영농 후계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17%,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44.6%, 아직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중이 38.0%로 영농후계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벨기에의 2014년 평균 농가당 소득은 5만 4,016유로로 조사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17c). 농가유형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가장 높은 소득을 내는 유형은 낙농가로 평균 7만 8,587유로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소득을 내는 유형은 가축방목 농가로 평균 4만 2,153유로로 조사됐다. 2013년 플랜더스의 평균 농업소득은 왈로니아의 농업소득 보다 약 27% 낮았다. 플랜더스에서 가장 높은 농업소득을 보이는 농가유형은 원예 농가이며, 가장 낮은 소득을 보인 육우 농가의 소득보다 5배가량 높다(Departement Landbouw en Visserij n.d.). 플랜더스 지역의 2006~2013년 경종농가와 원예농가 소득을 비교하면 원예농가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2013년 기준 경종농가 대비 12.7% 높은 소득을 보인다. 왈로니아의 가장 높은 농업소득은 경종작물 재배 농가에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소득을 보인 것은 플랜더스와 마찬가지로 육우 농가이다. 왈로니아의 경종작물 재배 농가는 육우농가 보다 약 3배 더 높은 소득을 보인다(Wallonie 2017).

<표 2> 2014년 농가유형별 평균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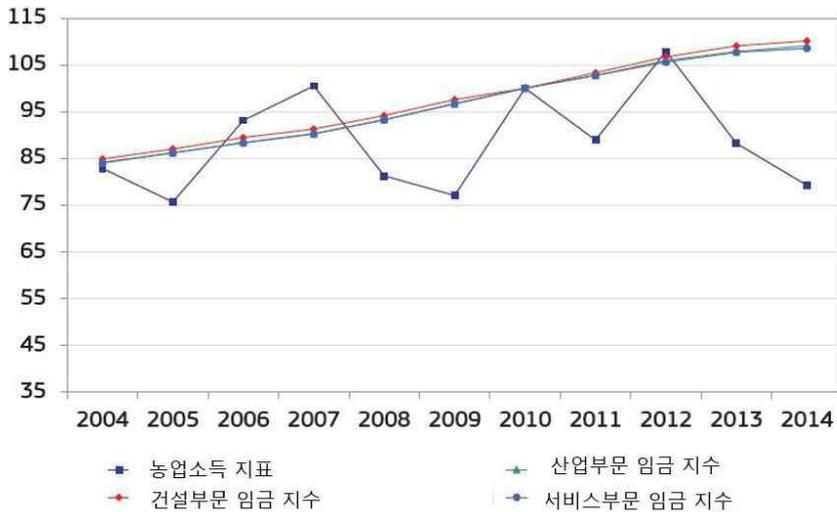
단위: 유로/농가

	밭작물	원예작물	기타 다년 생 작물	낙농	방목가축	영농복합	평균
소득	48,582	44,276	44,592	78,587	42,153	58,635	54,016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c).

벨기에의 농업소득 지표를 다른 부문 임금 지수와 비교한 추이는 <그림 3>과 같다. 산업, 건설, 서비스부문의 임금은 큰 변화 없이 2004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지만, 농업소득은 매우 큰 변동폭을 보이며 일정한 상승세를 찾기도 어렵다. 또한 다른 산업부문과 비교하면 2개 년도를 제외하고 항상 더 낮거나 비슷한 소득을 보여 농가소득 제고 및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 농업소득과 건설·산업·서비스 부문 임금 지수 추이(2004-2014)



자료: European Commission(n.d.).

2.3. 농업 생산

곡물 재배면적은 2001년~2008년에 크게 증가했다가 이후 약간 감소하였으나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사탕무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감자 재배면적은 확대되었다. 1980년 이후 감자 생산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여 1980년 대비 감자 생산량은 세배 늘어났다 (Statistics Belgium 2017b).

<표 3> 작물별 재배면적 추이(2000, 2012~2016)

단위: ha

구 분	2000	2012	2013	2014	2015	2016
곡류	313,485	341,822	337,910	333,577	341,460	336,859
겨울 밀	200,600	205,260	186,062	193,670	198,481	204,690
겨울 보리	40,349	42,639	42,972	43,163	44,167	52,244
옥수수	35,783	67,217	73,955	62,824	58,384	52,076
특용작물	133,307	91,995	93,667	91,975	87,056	91,365
사탕무	90,858	61,165	60,191	58,602	52,341	55,504
감자	65,844	66,975	75,315	80,370	78,640	89,163
채소	2,215	1,696	1,672	1,979	2,724	2,896
사료용 작물	292,104	251,710	258,554	256,822	344,444	272,630
사료용 옥수수	166,336	170,471	177,457	178,123	173,389	168,588
목초지(일시적)	114,730	71,268	70,702	68,038	158,413	90,274
밭 채소	35,920	39,118	39,654	43,525	43,498	-
다년생 작물	20,642	22,008	22,271	22,260	22,539	-
영구 목초지	506,946	507,237	498,195	492,042	410,884	477,570
온실 작물	2,327	1,896	1,980	1,979	2,058	-
휴한지	20,097	8,418	8,462	8,037	10,159	9,160

자료: Statistics Belgium(2017b:17).

2015년 총 농업 면적 중 영구 목초지가 3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사료용 작물(25.6%)과 곡물(25.4%)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00년과 비교하여 큰 차이는 없으나 영구 목초지가 다소 감소(-5.7%)하였고 곡물과 사료용 작물의 재배면적이 각각 3%, 4.7% 증가했다. 영구 목초지, 사료용 작물과 곡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아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축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도축 두수로 나타난 육류 생산량을 보면 지난 십년 간 소고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산되어왔다. 돼지고기 생산은 2006~2010년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금류는 2013년의 하락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2016년에는 전년대비 14.5% 증가한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2016년 도축량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육류는 돼지고기로 총 가축 도축량의 78.9%에 해당한다.

<표 4> 가축별 도축 두수

단위: 천 두

구분	2014	2015	2016	2016/2015 증감율
소	5,477	2,503	2,501	-0.1%
젖소	956	974	988	+1.4%
돼지	6,350	6,364	6,177	-2.9%
가금류	33,700	37,739	43,223	+14.5%
산란계	1,894	13,348	14,248	+6.7
육계	21,161	23,838	28,306	+18.7

자료: Statistics Belgium(2017a:25).

2015년 기준 플랜더스 재배면적의 56.2%가 사료작물 재배지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나머지는 경종작물이 34.9%, 원예작물 8.5%, 기타 0.4%로 구성된다(Departement Landbouw en Visserij n.d.). 2013~2015년 평균 왈로니아의 작물별 재배면적 또한 사료작물이 56.1%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였고 경종작물 37.2%, 원예작물 5.6%, 기타가 1.1%를 차지하고 있다(Wallonia agriculture SPW 2017).

<표 5> 지역별 작물별 재배면적 및 농가유형 비중

단위: %

작물별 재배면적 비중	사료작물	경종작물	원예작물	기타	계
플랜더스(2015)	56.2	34.9	8.5	0.4	100
왈로니아 (2013~2015 평균)	56.1	37.2	5.6	1.1	100
농가유형별 비중	축산농가	경종농가	원예농가	영농복합	계
플랜더스(2015)	53.0	23.0	13.0	11.0	100
왈로니아 (2013~2015 평균)	49.2	31.0	0	11.5	100 (기타8.9% 포함)

주: Eurostat에서 농가유형(farm specialisation)은 해당 재배작물이 농가소득 혹은 생산량의 최소 삼분의 이를 차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구분함. 따라서 원예작물 재배면적이 존재하더라도 농가유형별 비중에는 원예농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음.

자료: Wallonia agriculture SPW(2017), Departement Landbouw en Visserij(n.d).

농가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플랜더스 농가의 절반 이상(53%)이 축산농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종농가 23%, 원예농가 13%, 영농복합농가 11%로 구성된다<표 5>. 축산농가 가운데 25%가 육우농가에 해당하며 낙농가 23%, 양돈농가가 17%를 차지한다. 왈로니아 또한 축산

농가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경종농가가 31%를 차지한다. 플랜더스는 왈로니아 보다 더 집약적인 농업 생산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예작물과 원예농가의 높은 비중이 이를 뒷받침 한다.

유기농업 또한 벨기에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10~2016년 유기농가의 수는 연평균 9.1% 증가했고, 유기농경지 면적은 6%, 유기농 육우 두수도 38.5% 크게 증가했다. 유기재배의 규모는 왈로니아에서 훨씬 큰 편이지만 2016년에는 플랜더스의 유기 농지면적이 30% 대폭 증가하여 향후 더 큰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표 6> 유기농가 수·농경지면적·육우두수

단위: 호, ha, 두

	1987	1997	2010	2012	2014	2015	2016
벨기에 전체							
농가 수	109	291	1,140	1,389	1,630	1,717	1,923
농지면적	1,000	6,818	48,700	59,684	66,693	68,780	78,249
육우 두수			64,009	72,487	76,443	80,269	88,682
플랜더스							
농가 수	72	107	256	299	343	370	430
농지면적	417	820	3,822	4,939	5,042	5,343	6,960
육우 두수			2,676	2,797	2,901	2,565	3,161
왈로니아							
농가 수	37	184	884	1,090	1,287	1,347	1,493
농지면적	583	5,998	44,878	54,745	61,651	63,437	71,289
육우 두수			61,333	69,690	73,642	77,704	85,521

자료: Statistics Belgium(2017b:47).

2.4. 소비

2010년 이후 소비자 식품 가격은 14% 증가하였으나 농업인 수취가격은 감소하였다. 2013년 중반~2014년 중반, 농업인 수취 가격은 침체되었고 다시 소비자 가격보다 낮아졌다. 지난 30년 동안 소비자 가격은 농업인 수취 가격보다 빠르게 상승했다. 2013~2016년 간 농업 생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순 부가가치 또한 지난 10년간 감소세를 보여 농가의 경제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었다. 특히 2006년부터 돼지고기 가격이 사료가격 대비

계속 떨어져 양돈 농가의 소득이 크게 낮아졌고 육우 가격 또한 동기간 계속 하락했다. 우유의 경우 농업인 평균 수취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커 낙농가 역시 낙농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그림 4> 소비자 식품가격지수 및 농업인 수취가격 지수 변화 추이(2009~2017)



자료: Statistics Belgium(2017b:27).

총 소비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35년 간 감소했다. 특히 2014년에는 그 비중이 22%에서 14%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식품류 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빵류, 신선육류, 소시지의 소비는 절반가량 감소한 반면 가공식품은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2.5. 수출

총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지만 수출 측면에서 농식품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다. 육가공류, 채소류, 유제품이 국가전체 수출액의 5%를 차지하고, 가공식품·음료·담배 수출액 비중(6.2%)을 포함하면 총 비중은 11.7%에 달한다. 품목군을 세분화하면 육고기(12.8%), 낙농제품(12.7%)의 수출액 비중이 높고 육고기, 낙농제품, 과일과채 가공품, 곡물조제품, 음료를 포함한 5개의 품목군이 국가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55.5%)을 차지한다.

<표 7> 농식품 수출현황(2016년)

단위: 백만 유로

구 분	육가공류	채소류	유지류	가공식품· 음료·담배	계
농식품 수출액	6,535	6,104	1,381	15,682	29,702
농식품 수출액 대비 비중	22%	20%	5%	53%	100%
총 수출액 대비 비중	2.6%	2.4%	0.5%	6.2%	11.7%

자료: Statistics Belgium(2017b:43).

벨기에의 식품수출은 주로 유럽연합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다. 여러 국가와 인접한 위치의 이점을 이용한 것이다.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로 수출하는 식품액이 전체 식품 수출액의 57%에 달하며, 그 중 85.2%가 유럽연합 역내로 수출된다(Belgian foreign trade agency 2015). 유럽연합을 제외한 해외로 수출되는 식품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4년에는 총 식품 수출액의 14.8%가 유럽연합 역외 국가로 수출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12.5%나 증가한 비중이다. 가장 큰 시장은 미국으로 2014년 수출액이 전년대비 약 17.4% 증가한 4,580억 유로에 달한다. 반면 러시아 시장은 유럽연합과의 정치적 대립상황으로 인해 수출액이 30% 대폭 감소했다. 급증하고 있는 벨기에의 수출시장은 브라질, 알제리, 중국으로 전년대비 각각 31.9%, 80.4%, 23.6% 증가했다. 벨기에 식품산업협회(FEVIA)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주요 아시아 수출시장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킨 바 있어 향후 식품교역 동향을 주목해 볼만 하다(Fevia n.d.).

3. 지역별 정책 주안점

각 지역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벨기에 는 연방제를 취하고 있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한 축인 농촌개발프로그램을 지역단위로 수립한다. 왈로니아와 플랜더스 지역 정부 모두 농업이 환경에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 감소와 농촌의 활력 향상에 관심을 두고 있으나 두 축에 두는 중요도는 지역별로 서로 다르다. 왈로니아 지역정부는 질산염, 왈로니아 토양의 약 60% 이상에서 발견되는 높은 인(phosphorus) 농도, 작물보호제의 과다 사용 등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즉 농촌개발프로그램의 6가지 우선순위 중 특히 '농림의 재복원·보호·생태계시스템 증진'에 주안점을 둔다(European Commission 2017a). 목표별로 농지면적의 일정 비율을 설정하여, 생물다양성 증진 제도는 농지면적의 20%, 수질관리 증진 기여는 16%, 토양관리 증진은 14%로 설정하였다. 또한 8만 ha의 농지면적은 유기농업 전환 및 지속 지원금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농업 환경측면 이외에도 농가 수 감소 대응방안으로 청년농업인을 위한 570여개의 프로젝트 지원,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참고: 벨기에의 농업인 조직

벨기에는 사회주의노동운동과 기독교농민운동의 영향으로 인해 농업인 조직 및 협동조합 형성이 역사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과일채소 협동조합인 벨오타(BelOrta), 낙농협동조합인 밀코벨(Milcobel)이 있다. 과일채소 전체 시장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83%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낙농협동조합 또한 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Bijman et al. 2012). 2008년 기준 밀코벨은 약 8.2억 유로, 벨오타는 약 3.7억 유로의 수익을 냈다(Departement Landbouw en Visserij 2013).

벨오타 협동조합은 경매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농업인들의 판로를 보장하여주는 데, 이는 구매업체(retailor) 보다 생산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구매업체들은 미리 긴 시간을 두어 구매량을 결정하고 동일한 상품을 대량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가격 결정이 더 투명하고 거래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경매방식을 더 선호한다. 생산자들의 시장 교섭력이 강화되므로 가격 변동성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 과일채소류의 경우 수확 후 보관기간이 짧아 구매업체와의 거래보다 경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유리한 점도 과일채소류 협동조합이 발달한 이유이다. 네덜란드의 생산자들이 벨기에의 벨오타 조합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비중도 높는데, 이는 경매를 통한 가격결정이 구매업체의 횡포로 인해 네덜란드에서는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협동조합을 통한 산지조직화가 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적 이유와 더불어 벨기에 각 지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덕분이라 할 수 있다. 벨기에가 시행하고 있는 협동조합 관련 정책의 수는 총 64개로,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협동조합 지원정책을 가지고 있다.

높이기 위한 농식품체인 참여 촉진 지원,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농촌의 활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플랜더스 지역정부는 특히 “농촌의 활력과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청년농업인, 혁신 및 교육, 농업의 경제·환경적 지속가능성 향상, 농촌의 활력과 삶의 질 증진 등 4가지 부문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European commission 2017b). 농업인조직 수립 지원정책은 플랜더스 농가 수의 약 5%(1,200호)를, 청년농업인 지원 또한 1,400호를 대상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촌 활력 향상을 목표로 추진된다.

4. 맺음말

우리나라의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합친 면적과 비슷한 규모의 작은 나라인 벨기에는 높은 인구밀도와 도시화, 비교적 느슨한 제도로 인해 농지 매매가격이 매우 높고, 농업소득은 최근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농가 수는 급격히 하락하고 호당 재배면적은 규모화되는 등 현재 벨기에 농업이 직면한 상황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이에 대응해 벨기에 각 지역정부에서는 청년농업인 진입과 농업시설 투자, 그리고 농식품체인에서 농업인의 가격협상력 확보를 위해 생산자 조직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 수출액이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지리적 이점과 탄탄한 생산자 조직 육성을 통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의 농업강국과 해외에 수출하는 농식품가치는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농업이 현재 당면한 과제 또한 벨기에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감소하는 농가 수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산지조직화, 축산 및 원예농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 양분관리 문제 등에 대해서는 벨기에의 접근 방식을 계속 주시해볼만 하다.

참고문헌

- Beeck, Valérie Op de. 2016. AGRICULTURE IN BELGIUM TODAY: FINDINGS, CHALLENGES AND SOLUTIONS. Kairos.
<http://www.kairospresse.be/article/l-agriculture-en-belgique-aujourd'hui-constats-defis-et-solutions> 검색일 2018.03.01.
- Belgian foreign trade agency. 2015. Belgian innovative food solutions.
- Bijman et al. 2012. Support for Farmers' Cooperatives, Final report. European Commission.
- Departement Landbouw en Visserij. 2013. COÖPERATIES EN PRODUCENTENORGANISATIES, EEN DOORLICHTING.
- Departement Landbouw en Visserij. n.d. Landbouwcijfers.
<https://lv.vlaanderen.be/nl/voorlichting-info/feiten-cijfers/landbouwcijfers> (검색일 2018.3.18).
- Deam, Lisa. 1998. "Flemish versus Netherlandish: A Discourse of Nationalism". Renaissance Quarterly 51(1).
<http://www.thefreelibrary.com/Flemish+versus+Netherlandish:+a+discourse+of+nationalism-a020602490> 검색일 2018.3.1.
- European Commission. 2017a. Factsheet on 2014–2020 rural development programme for Wallonia.
- European Commission. 2017b. Factsheet on 2014–2020 rural development programme for Flanders.
- European Commission. 2017c. Farm Economy Focus, Belgium
- European Commission. n.d. Belgium, CAP in your country.
- FAO. 2015. "Urban and peri-urban agricultur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http://www.fao.org/unfao/bodies/coag/coag15/x0076e.htm> 검색일 2018.3.1.
- Fevia. n.d. Food2025, An export strategy for the Belgian food industry.
- Foreign affairs, foreign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2016. Agriculture and fisheries.
https://diplomatie.belgium.be/en/policy/coordination_european_affairs/policy/agriculture_and_fisheries 검색일 2018.3.1.
- Cavailles, J. and I. Thomas. 2011. "The influence of urban sprawl on farmland prices in Belgium (refereed paper)," ERS conference papers ersa10p1628, Europ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 Statistics Belgium. 2017a. Chiffres cles, Aperçu statistique de la Belgique.
- Statistics Belgium. 2017b. Chiffres cles de l'agriculture 2017
- Swinnen, Jo., Kristine Van Herck and Liesbet Vranken. 2016. "The Diversity of Land Markets and Regulations in Europe, and (some of) its Causes".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52(2):186-205.
- Swinnen, Jo. n.d. EU Land Market and the CAP,
<http://www.oecd.org/agriculture/44830575.pdf> 검색일 2018.3.1.
- The telegraph. 2011. Belgium breaks Iraq's 249-day record without a government
<https://www.telegraph.co.uk/news/worldnews/europe/belgium/8328926/Belgium-breaks-Iraqs-249-day-record-without-a-government.html> 검색일 2018.3.17.
- Wallonia agriculture SPW. 2017. Agriculture wallonne en chiffres 2017
- Wallonie. 2017. EVOLUTION DE L'ECONOMIE AGRICOLE ET HORTICOLE DE LA WALLONIE 2017

참고사이트

- 위키피디아 "Belgium", "Politics of Belgium", "Partition of Belgium", "2007-11 Belgian political crisis", "Agriculture in Flanders"
- 네이버 지식백과, 벨기에의 역사
- 플랜더스 농업부 홈페이지(<https://lv.vlaanderen.be>)
- 왈로니아 농업부 홈페이지(<https://agriculture.wallonie.be>)